



다솜 시 모음

# 시 모음 자료 목차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	2
진달래꽃 (김소월) .....	2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	3
들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	3
꽃 (김춘수) .....	3
가을의 기도 (김현승) .....	4
사슴 (노천명) .....	4
식민지의 국어시간 (문병란) .....	5
세월이 가면 (박인환) .....	6
논개 (변영로) .....	6
국화 옆에서 (서정주) .....	7
생명의 서 (유치환) .....	8
서 시 (윤동주) .....	8
Forward (Dong-ju Yun) .....	9
십자가 (윤동주) .....	9
The Cross (Dong-ju Yun) .....	9
청포도 (이육사) .....	10
너에게 띄우는 글 (이해인) .....	10
어떤 기도 (이해인) .....	11
해마다 봄이 되면 (조병화) .....	12
알 수 없어요 (한응운) .....	12
첨밀밀 .....	13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	13
The Road Not Taken (Robert Frost) .....	14
화살과 노래 (롱펠로우) .....	14
The Arrow and the Song (Longfellow) .....	15
채프먼 역의 호머를 처음 읽고서 (키츠) .....	15
On First Looking into Chapman's Homer (Keats) .....	16

##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진달래꽃 (김소월)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詩)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 꽃 (김춘수)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가을의 기도 (김현승)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옴로 있게 하소서 .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 사슴 (노천명)

노천명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짐작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 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데 산을 쳐다본다.

## 식민지의 국어시간 (문병란)

문병란

내가 아홉 살이었을때  
20 리를 걸어서 다니던 소학교  
나는 국어시간에  
우리말 아닌 일본말,  
우리 조상이 아닌 천황을 배웠다.

신사참배를 가던 날  
신작로 위엔 무슨 바람이 불었던가,  
일본말을 배워야 출세한다고  
일본놈에게 불어야 잘 산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조상도 조국도 몰랐던 우리,  
말도 글도 성(姓)까지도 죄다 빼앗겼던 우리,  
히노마우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말 앞에서  
조센징의 새끼는 항상 기타나이가 되었다.  
어쩌다 조선말을 쓴 날  
호되게 뺨을 맞은  
나는 더러운 조센징,  
뺨을 때린 하야시 센세이는  
왜 나더러 일본놈이 되라고 했을까.

다시 찾은 국어시간,  
그날의 억울한 눈물은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나는 영어를 배웠다.  
혀가 꼬부라지고 헛김이 새는 나의 발음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스물다섯 살이었을 때  
나는 국어선생이 되었다.  
세계에서 제일 간다는 한글,  
배우기 쉽고 쓰기 쉽다는 좋은 글,  
나는 배고픈 언문선생이 되었다.  
지금은 하야시 센세이도 없고  
뺨 맞은 조센징 새끼의 눈물도 없는데  
윤동주(尹東柱)를 외우며 이육사(李陸史)를 외우며  
나는 또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어릴적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일본말,  
그날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는데  
다시 내 곁에 앉아 있는 일본어선생,  
내 곁에 뺨내고 있는 영어선생,

어찌하여 나는 좀 부끄러워야 하는가.

누군가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내 귀에 가만히 속삭이는데  
까아만 질판에 써놓은  
윤동주의 서시(序時)  
한 점 부끄럽이 없기를 바라는  
글자마다 눈물을 흐리고 있다  
오 슬픈 국어시간이여.

### 세월이 가면 (박인환)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취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 논개 (변영로)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팝던 그 아미(蛾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魂)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 국화 옆에서 (서정주)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 생명의 서 (유치환)

유치환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여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서 시 (윤동주)

윤동주

윤동주(1917~1945), 아명은 해환, 북간도 동명촌 출생, 연희전문 문과 졸업, 일본 릿쿄 대학, 도시샤 대학 수학, 1943년, 여름 방학 귀국 직전에 독립 운동가로 체포되어 2년 형을 언도받고 후쿠오카에서 복역 중 옥사했다, 일제 치하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내면 세계를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자아 성찰적인 시를 이루었다,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가 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있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Forward (Dong-ju Yun)

Wishing not to have  
So much as a speck of shame  
Toward heaven until the day I die,  
I suffered, even when the wind stirred the leaves.  
With my heart singing to the stars,  
I shall love all things that are dying.  
And I must walk the road  
that has been given to me.

Tonight, again, the stars are  
brushed by the wind.  
(Translated by Kyung-nyun Kim)

## 십자가 (운동주)

운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The Cross (Dong-ju Yun)

The sun was following me,  
But it is now caught on the cross  
How can I get up  
that high on the steeple?

No sound comes from the bell:  
I might as well whistle and hang around.

If I were permitted my own cross,  
like the man who suffered,  
blessed Jesus Christ,

I would hang my head  
and quietly bleed  
blood that would blossom like a flower  
under a darkening sky.

(Translated by Kyung-nyun Kim)

## 청포도 (이육사)

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너에게 띄우는 글 (이해인)

이해인

사랑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진정한 친구이고 싶다.  
다정한 친구이기 보다는  
진실이고 싶다.  
내가 너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만남의 의미를 전해 주었다.  
순간의 지나가는 우연이기 보다는  
영원한 친구로 남고 싶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너와 나이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  
모든 만남이 그러하듯  
너와 나의 만남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진실로 너를 만나고 싶다.  
그래,  
이제 더 나이기보다는 우리이고 싶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현실을  
언제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접어두자.  
비는 싫지만 소나기는 좋고  
인간은 싫지만 너만은 좋다.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너에게 사랑을 준다.

## 어떤 기도 (이해인)

이해인

적어도 하루에  
여섯 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마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음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도 다시 쓴다

## 해마다 봄이 되면 (조병화)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험 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독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 알 수 없어요 (한용운)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과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첨밀밀

달콤하네요, 당신의 미소는 얼마나 달콤한지,  
 마치 봄 바람 속에 피어 있는 한 송이 꽃과도 같군요,  
 봄 바람 속에 말이예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당신을 본 것 같아요.  
 당신의 미소는 이렇게 낮이 익은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꿈에서예요. 꿈속에서 당신을 보았어요.

달콤한, 달콤한 그 미소.  
 당신이군요. 당신이었어요.  
 꿈 속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예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당신을 만났던 것 같아요.  
 당신의 미소는 이렇게 친숙한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꿈 속에서군요.

##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 The Road Not Taken (Robert Frost)

Robert Frost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fair,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 화살과 노래 (롱펠로우)

롱펠로우

하늘을 향해 나는 활을 당겼다.  
 화살은 땅에 떨어졌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도 빨리 날아가버려  
 눈으로도 그 화살을 따를 수 없었다.

하늘을 향해 나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땅에 떨어졌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눈길이 제 아무리 예리하고 강하다한들  
 날아가는 노래를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오랜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느티나무에서  
 나는 보았다. 아직 꺾이지 않은 채 박혀있는 화살을  
 그리고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친구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 The Arrow and the Song (Longfellow)

Henry Wadsworth Longfellow

I shot an arrow into the air;  
 It fell to earth, I knew not where;  
 For, so swiftly it flew, the sight  
 Could not follow it in its flight.

I breathed a song into the air;  
 It fell to earth, I knew not where;  
 For, who has sight so keen and strong  
 That it can follow the flight of song?

Long, long afterward, in an oak  
 I found the arrow, still unbroke;  
 And the song, from beginning to end,  
 I found again in the heart of a friend.

### 챠프먼 역의 호머를 처음 읽고서 (키츠)

존 키츠

황금의 영토를 나는 많이 여행했고  
 많은 훌륭한 나라와 왕국을 보았다.  
 시인들이 아폴로 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많은 서쪽 섬들도 나는 돌아다녔다.  
 종종 이마 흰 호메로스가 자기 영토를 다스렸던  
 한 넓고 넓은 땅 이야기를 나는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내 일찍 그곳 순수한 공기 쉬어 본 일 없었다.  
 챠프먼이 대답하게 우렁차게 말하는 것을 듣기까지는.

그때 나는 느꼈다-새 유성이 시계에  
헤엄쳐 들어왔을 때의 어느 하늘의 관찰자처럼,  
혹은 독수리 눈으로 태평양을 응시하는  
- 모든 그의 부하들은 무한한 억측에 싸여  
서로를 쳐다볼 때의 억센 코르테스처럼,  
다리엔의 봉우리 위에서 말없이.

## On First Looking into Chapman's Homer (Keats)

John Keats

Much have I traveled in the realms of gold,  
And many goodly states and kingdoms seen;  
Round many western islands have I been  
which bards in fealty to Apollo hold.  
Oft of one wide expanse had I been told  
That deep-browed Homer ruled as his demesne;  
Yet did I never breathe its pure serene  
Till I heard Chapman speak out loud and bold:  
Then felt I like some watcher of the skies  
When a new planet swims into his ken;  
Or like stout Cortez when with eagle eyes  
He stared at the Pacific—and all his men  
Looked at each other with a wild surmise—  
Silent, upon a peak in Darien.